

“받은 사랑으로 과학자 응원합니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3천억 출연 ‘서경배 과학재단’ 설립
생명과학 신진학자 3~5명 선발 과제당 연구비 5년 25억 지원

“아모레퍼시픽은 어려울 때마다 과학의 힘을 통해 다시 일어났습니다. 주위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성공하기 어렵고, 이를 갚기 위해 ‘서경배 과학재단’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서경배 회장이 자신이 설립한 ‘서경배 과학재단’에 사재 30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서 회장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서경배 과학재단 설립 발표’ 미디어 간담회를 열고 서경배 과학재단에 3000억원 규모의 개인 보유 주식을 기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경배 과학재단은 서 회장이 개인 재산을 출연한 첫 공익재단으로, 생명과학 분야에서 새로운 연구 활동을 하는 국내 신진 과학자를 발굴해 그들의 연구 활동을 장기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서경배 과학재단은 지난 7월 11일 창립총회를 열었으며 지난달 4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정식 허가를 받았다.

과학재단은 매년 공개 모집을 통해 생명과학 분야 신진학자 3~5명을 선발하고 각 과제당 5년 기준 최대 25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특히 우수 연구자에 대해서는 중간 심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선발은 1차 서류 심사, 2차 연구 계획서 서류 심사 및 토론 심사 등으로 진행되며 연구 과제의 독창성, 파급력, 연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연구 지원 사업의 1차연도 과제는 오는 11월 공고될 예정이다. 내년 1~2월 과제 접수 후 1차 심사(3~4월)와 2차 심사(5월)를 거쳐 6월에 최종 선정자가 발표된다.

과학재단은 국내외 전문가들로 과학자분단과 심사위원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과학자분단은 재단의 전반적인 운영과 해외 연구 지원 사업에 대해 자문을 맡고, 심사위원단은 분과별 전문가들로 구성돼 연구 지원 사업 심사를 맡는다.

과학재단 이사장을 맡은 서 회장은 “뛰어난 역량을 가진 국내 연구자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독창적인 연구 영역을 개척하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이 강화되고 인류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내 1위 화장품 기업인 아모레퍼시픽은 그동안 학술·교육·문화사업을 지원하는 ‘아모레퍼시픽재단’과 저소득층 복지 활동을 주로 하는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유방건강 비영리 공익재단인 ‘한국유방건강재단’ 등을 운영해왔다.

서 회장이 개인 재산을 출연한 재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의 삼성전자 회장에 이어 국내 주식 부자 2위인 서 회장은 그동안 개인적 차원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속고하다 이번 재단 설립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서경배 과학재단 설립 발표’ 미디어 간담회에서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그룹 제공〉

느수짓다

제5회 빛고을 핸드메이드페어
GWANGJU HANDMADE FAIR

기간 2016.09.01 ~ 09.04일
장소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3전시장



핸드메이드 페어 개막
1일 오전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전시장에서 열린 ‘제5회 빛고을 핸드메이드 페어’ 개막식에서 참석자들이 스카프 매듭풀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문인 행정부시장 명퇴 신청

광주시 내년 시급 8410원…7.3% 인상

문인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최근 행정자치부에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후임 행정부시장은 행자부의 박모(54) 조작정책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인사는 신임 부시장 인선과 맞물려 오는 23일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부시장은 지난 6월 윤장현 시장에게 1년 정도 부시장직을 맡는 것이 관례이고 후배들에게 길을 터줘야 한다는 취지의 이임 인사를 밝힌 바 있다. 문부시장은 정년을 2년 6개월 남긴 상태다. /최권일기자 cki@

광주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時給) 기준 8410원으로 결정,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시급 7천839원보다 7.3%(571원) 오른 것이다.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급 기준 175만7690원이다.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급 기준 175만7690원이다. 올해는 163만8350원이다. 정부의 최저 임금 6470원(시급)보다 30% 많은 금액이다. 이 금액에는 시간 외 수당과 연차수당 등이 제외된다.

수혜 대상자는 시 본청과 사업소 근로자 161명,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272명 등 433명이다. 용역 근로자는 제외되고 직접 고용자가 대상이다.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은 5억5000여만 원으로 예상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생활임금제를 도입, 운영하는 광역 지자체는 광주를 비롯해 서울, 인천, 대전 등 11곳이다.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생활임금은 4인 기준 근로자가 주 40시간의 노동으로 실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교육비·교통비·문화여가 비용 등을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인간다운 삶은 영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7월 광주노동센터에 의해 생활임금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노동환경에 대한 임금수준, 고용안정, 정규직과의 차별 정도, 소속감 등 만족도가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출연·출자 줄이고 교육·의료 확대

추경 11조 들여다보니

정부가 제출한 11조원의 추경경정예산(추경)안이 최종 확정됐다.

9조8000억원의 사업예산은 1000억원 줄고, 1조2000억원의 국가채무 상환 재원은 1000억원 늘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나랏돈 퍼주기’ 비판을 의식해 출연·출자 를 줄여 대신 교육·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일 소위원회 회의와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확정했다.

예결위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안은 애초 정부안 대비 4654억원이 감액되고 3600억원이 증액돼 전체 규모로는 1054억 원이 순증됐다. 삭감액을 증액 사업에 추가하고 남은 1054억원은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된다.

‘대우조선해양 퍼주기 논란’이 제기된 외국인평형기금 출연은 2000억원이砍감됐다. 또 사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해운 보증기구 관련 출자도 1300억원에서 650억원으로 반감됐다.

전체 삭감액 중 3600억 원은 교육·의료와 일자리 창출 재원 등에 주로 얹어졌다. 우례탄 운동장과 통합관사 설치 등 교육 시설 개·보수에 2000억원이 지원되며, 의료급여 경상보조 800억원과 독감 등 국가 예방접종 280억원이 증액됐다.

만약, 여야 간 협상 과정에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부당 원칙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추경예산 확정에 따른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내역

단위: 조원	2016년 본 예산	정부안	확정
총 지출	386.4	398.6	398.5
보건·복지·노동	123.4	126.8	126.9
교육	53.2	55.2	55.1
문화·체육·관광	6.6	6.9	6.9
환경	6.9	7	7
연구개발(R&D)	19.1	19.2	19.1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3	18.7	18.6
SOC	23.7	23.7	23.7
농림·수산·식품	19.4	19.6	19.6
국방	38.8	38.8	38.8
외교·통일	4.7	4.7	4.7
공공질서·안전	17.5	17.5	17.5
일반공공행정	59.5	63.2	62.9

자료/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의원들은 지역구 예산을 하나라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인자상정인데, 추경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해 최대한 그 부분을 자체해 줬다”고 말했다.

추경안 확정에 따라 올해 총지출은 398조5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1054억원 줄었다. 애초 정부는 추경 재원 중 1조2000억 원을 국가채무 상환에 쓰려 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에서 이를 6000억원으로砍감했으나, 예결위 협상 결과 원상 회복한 데 이어 총감액 1054억원이 더해지면서 1조3000억원으로 늘어난 셈이다. 이를 통해 관리재정수지는 39조원 적자로 소폭 개선되고, 국가채무 역시 637조7000억원으로 감소한다. /박지경기자 jkpark@ 연합뉴스

도난 문화재 ‘송광사 오불도’ 돌아온다

문화재청, 내년 美 박물관서 환수키로

도난 당한 뒤 미국에서 그 존재가 확인된 18세기 불화 ‘송광사 오불도’(사진)가 내년 상반기에 한국으로 돌아온다.

문화재청과 대한불교조계종은 미국인 로버트 마티엘리(86) 씨가 미국 포틀랜드 박물관에 기탁한 송광사 오불도를 환수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송광사 오불도는 ‘관악왕약상이보살경’을 바탕으로 그린 ‘오십삼불도’ 중 하나로 1725년 제작됐다. 순천 송광사 불조전에 있는 오십삼불도는 칠불도 1폭, 구불도 2폭, 십사불도 2폭, 오불도 2폭 등 7폭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오불도 2폭은 과거 어느 시점엔 송광사에서 사라졌다.

이번에 돌아오는 오불도는 불조전 외쪽 출입문 벽에 걸려 있던 그림이며, 오른쪽 출입문에 있던 오불도는 여전히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오불도 소장자인 마티엘리 씨는 1960~

1980년대 서울에서 미술가와 교사로 활



동한 인물로, 1970년대 초 종로구 안국동 골동동점 서립장에 있던 이 불화를 발견해 구입했다.

/연합뉴스

사람을 찾습니다



• 162cm의 애원 체격, M자형 대머리, 목 뒤에 강낭콩 크기만한 혹이 있음
• 가슴, 배, 머리에 수술자국이 있음
• 실종 당시 삼정케이트불 글자가 자수로 놓인 검은색 쟁, 뒷면은 흰색인 모자를 쓰고, 상의 모시 웃지도 없는 반팔에 곤색 망사 주머니가 있는 조끼, 하의 검은색 바지, 흰색 바닥에 검은색 나이키 운동화를 신음
• 3차례 암수술과 오랜 투병생활로 치매증상 있으며 체력저하로 보행이 불편하고 청력이 악화
• 심한 통증을 호소할 수 있음(평상시에 악을 못드시면 잠도 제대로 못주무셨음) 갑자기 통증이 있을 때 깜빡깜빡 놀라시기도 함
실종일시 : 2016년 8월 3일
실종장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문릉지구 중흥아파트 정문 인근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아빠 좀 찾아주세요!!

최규복님 아들 최현성
010-5113-6582

2016 漢字·漢文指導師資格

※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 분	광주여자대학교(23기)	광주교육대학교(14기)
개강일시	· 금요일 오전반 : 2016. 9. 2(금) 09:10(초급반) · 토요일 오전반 : 2016. 9. 3(토) 09:10(특급반)	· 월요일 오전반 : 2016. 9. 5(월) 09:10(초급반) · 월요일 오후반 : 2016. 9. 5(월) 14:10(특급반) · 목요일 오전반 : 2016. 9. 1(목) 09:10(중급반) · 토요일 오후반 : 2016. 9. 3(토) 14:10(특급반)
모집기간	2016. 8. 1(월) ~ 9. 3(토)	2016. 8. 1(월) ~ 9. 3(토)
수업기간	2016. 9. 2(월) ~ 2017. 2. 11(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6. 9. 5(월) ~ 2017. 2. 11(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강료	₩ 360,000 (예금주 : 광주여대) · 광주은행 : 148-107-307803	₩ 360,000 (예금주 : 광주교대) · 국민은행 : 77390-01-476736
수료후 특 전	· 1,2단계 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 공인 기관 한글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 각 한문 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 금학교 방과 후 교육 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법취득기회 부여	· 1,2단계 연수과정